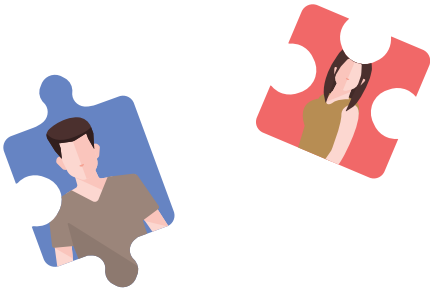


콘텐츠 혁명을 이끌 인재의 조건



콘텐츠란 곧 도전이 아닐까? 일자리는 한국 사회의 화두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는 이미 창출 방식이나 경로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은 아직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토지나 자원 또는 자금에서 출발하기 마련인 다른 사업들과 달리, 콘텐츠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력으로 인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는 곳, 이 콘텐츠업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소는 바로 '사람'이다. 그렇기에 콘텐츠 산업에서 잠재성이 가득한 인재의 가치는 기계나 자원으로 절대 대체될 수 없다.

콘텐츠업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할 일이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직군 중에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과 업무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도전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부딪혀보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꼭 필요한 일인지가 명확해질 것이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다루는 일들에 비해 더욱 자주, 다양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콘텐츠업계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을 때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또한 콘텐츠업계다.

신성장기술이 등장하며 바야흐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막을 연다.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에 놓인 것은 바로 콘텐츠다. 신기술을 접목하는 콘텐

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본기와 중심이 되는 스토리텔링이다. 아무리 놀랍고 새로운 기술이라도 그 기술이 등장하는 데 바탕을 두었던 기초 기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이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반응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나가는 태도 또한 그들이 지닌 미덕이다. 고금의 많은 일이 그러하듯 기본기를 닦은 후에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향후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 또한 이처럼 기본에 충실하며 변함없는 열정과 애착을 갖고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는 융합과 소통의 시대이기도 하다. 과거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해내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등한 사고방식 하에 서로 손을 맞잡는다. 이들이 품은 청사진은 자신들의 전문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꼭지점 위에 자리한 이상적인 결과물이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결과를 위해 전문가들은 기꺼이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경과 전공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들고, 자유롭고 유연하며 공통의 이상을 위해 도전하는 그런 인재를 콘텐츠 업계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